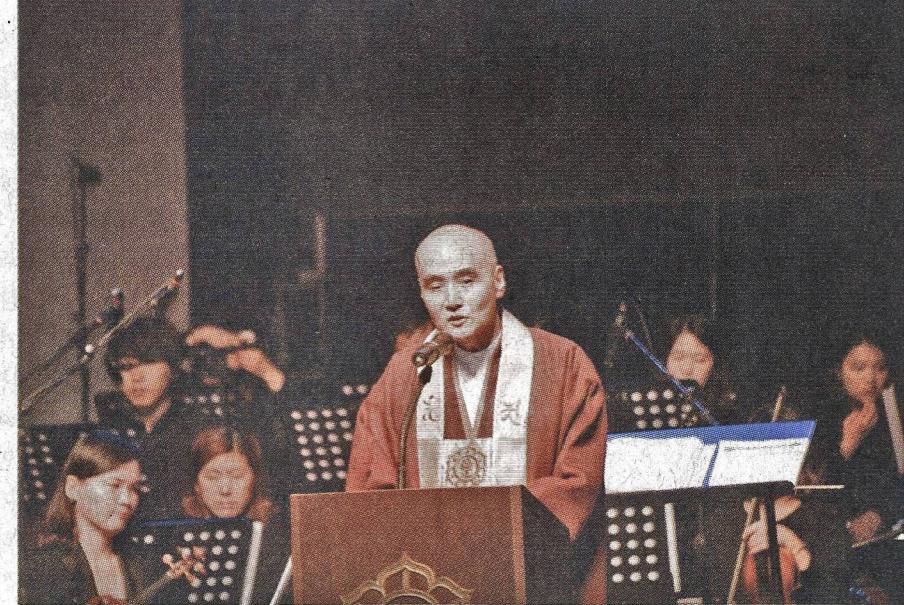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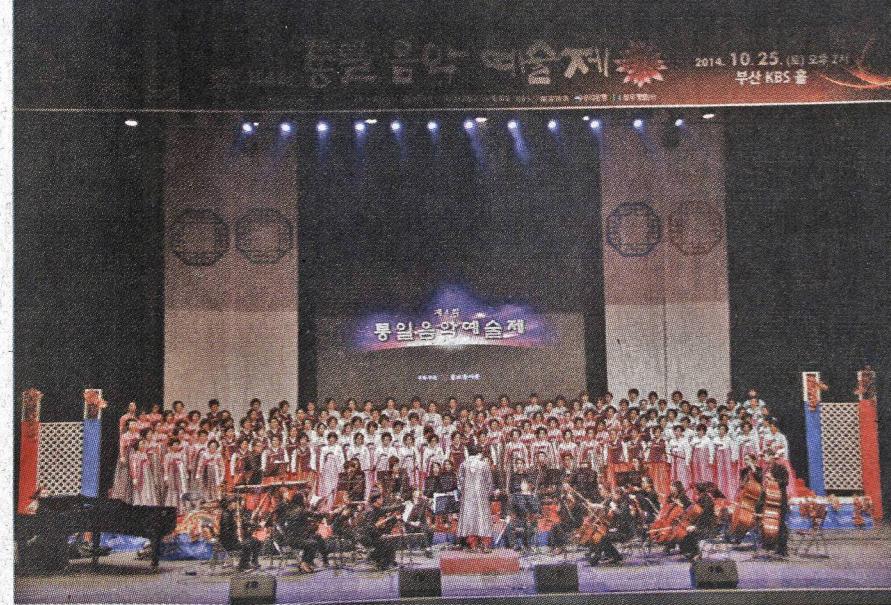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 봉행 마음의 소리, 치유의 음악, 평화의 노래 주제 2,000여 명 동참



불교총지종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25일 부산 KBS홀에서 화합과 치유의 무대로 열렸다. “마음의 평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학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로 진행되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

불교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항운 스님, 일한불교 여성부 고우다 료엔스님과 일본 여성부 대표, 대한불교 조종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대한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혜선 스님, 대한불교 총화종 포교원장 해광 스님, 부산불교 연합회 수석 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 연합회 상임 부회장 진각종 부산교구정장 효원 정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부장 법광 스님,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부장 혜륜 스님, 세계여성불자회 전회장 크리스티 장, 불교방송 이재원 사장, 부산불교방송 허성명 총괄국장, 한인불교 여성부 회장 백명숙, 부산 대만 대표부 대사 부인 장 사오시아,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 동해중 동문화 회장 김진도(삼우개발 회장), 동해 중동문화 사무국장 변현, 부산광역시 박성명 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동참하였다.

공연에 앞서 봉행된 개회식에서 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는 영상 벽을 통해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불교 음악인들이 참여하여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대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올려 펴질 훌륭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대립을 떠난 조화와 화합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자연의 법을입니다”라고 설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의 슬로건은 ‘마음의 소리, 치유의 음악, 평화의 노래’입니다. 올해에는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을 잃은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가슴 저미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불자들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하

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통일음악예술제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슬픔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음악가들의 힐링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가슴 속 슬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며 불교 음악을 통한 아픔을 힐링하는 음악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한국불교총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은 “올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술제가 갖고 있는 ‘치유의 공덕’이 약사여래의 감로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손 모아 기원합니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수불스님은 축사에서 “총지종 전국 연합회장단의 통일을 염원하는 합창곡과 오케스트라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아름다운 곡들의 공연을 통해, 각계각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며 음악제 무대의 기대감을 밝혔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도 축사에서 “불교명상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부산 전역에 울려 퍼지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회향의 메시지가 북녘 동포들에게 널리 퍼져 평화 통일의 날이 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며 불교음악을 통해 남북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이외에도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과 새누리당 부산 동래 이진복 국회의원과 많은 귀빈들이 축사와 축전, 축하 화환을 보내 왔다.

세계적인 명상음악가의 향연

부산불교방송 지은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문을 연 제2부 ‘세계의 소리’의 첫 연주자는 베트남 전통악기 ‘단챙’의 선율을 들려준 레민 흥이다. 베트남 전통음악〈투보(To Vo)〉와 드라마〈대장금〉의 주제가를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주었다. 중국의 전통 현악기 ‘꽹’은 모두 21줄로 전국시대부터 있었고, 전나라 때 융성한 악기다. 쟁의 연주자는 펑리행이 나섰다. 쟁의 전통 연주곡 중 가장 유명한 〈전태풍〉과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국 가요 〈첨밀밀〉을 연주 했다.

티베트 출신의 카락밴찌링의 전통악기인 ‘텅부’와 ‘다넨’을 연주와 생명의 힐링춤을 공연하는 최경실 선생의 차임의 춤 합동무대는 관객들의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의 소리’ 마지막 무대는 대만 동부 원주민 아미족 출신의 치유 음악가 바니이나가오와 아모르라다가 대만 전통악기로 파워풀한 음성을 통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었다.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한국의 소리

8명으로 구성된 퓨전 국악밴드 ‘아비오’는 하나의 음악장르에 얹매이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추구하는 젊은 음악가이다. 〈날아라 풍뎅이〉 〈아상풍류〉 〈터널 신드롬〉 〈이슬바람〉 네 곡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전과 현대 음악의 융합을 통해 화합의장을 열었다.

평화와 화합의 노래

만다라, 마니, 금강, 부림 4개 합창단은 지난 1년간 수행과 정진의 방편으로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를 준비했다. 합창단들은 이미 3번의 공연 경험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교화의 사명을 전하는 공부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했다,

먼저 무대에 오른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지휘 박윤규, 단장 김윤경)은 우리 가곡 〈청산에 살으리랏다〉를 합창했다. 올해 창단한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지휘 박건우, 단장 이혜주)은 짧은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면〉을 아름다운 회음으

로 합창하여 박수를 받았다. 대구·경북 교구 금강합창단(지휘 배해근, 단장 김계숙)은 찬불가 〈상천송이 연꽃 되어〉를 정성으로 불렀다. 서울·경인 마니합창단(지휘 김양희, 단장 손경옥)은 〈정진의 노를 저어〉를 전연 염송 수행의 마음으로 합창해 동참한 교도들과 불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의 마지막 무대는 총지종 전국 연합회장단이 전상의 화음으로 〈아름다운 나라〉 〈자유평화행복〉 〈총지종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합창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서 불교총지종 통일음악예술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화합을 넘어 세계의 평화를 서원하는 장을 열었다.

부산KBS홀 = 김종열 기자

지면안내

2면 제84회 추계강공 특별 강의

3면 실지사 헌공 가지 불사 봉행
총기43년 정기 중앙종의회 개최

4면 불교의 선정 - 도성제

5면 환당 대종사 입적 20주기
기념 특별법문

6-7면 통일음악예술제 화보

8면 법경 정사 만다라 이야기

9면 한일 불교 여성부 교류대회

11면 화령 정사 다보법회 법문

새로운 종종운동

첫째, 뼈를 깍는 듯한 철두 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 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총기43년 불교총지종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

총지인의 힘을 모은 화합과 소통의 법음향연이 사부대중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에 동참해주신 승단, 교도 및 후원단체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더 밝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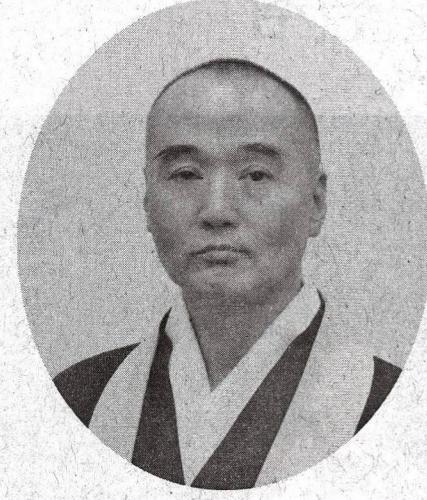


불교총지종 봉행위원장 법등

제4회 통일 음악 예술제

제84회 추계강공 특별 강의

밀교 수행과 밀교 염송선



▲ 통리원장 법등 정사

삼밀관행

이번 강공에서 밀교의 정통 수행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리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전에는 삼밀에 대해 “입진언문에 삼밀문(신밀, 구밀, 의밀)이 있으니 이 세 가지 방편 문에 의해 삼업을 정화하여 삼밀가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대일경소제1)라 이르고 있습니다.

삼밀유가관법(삼밀관행, 삼밀수행)을 통한 수행자의 종교적 체험이며 직관으로 파악되는 경지인 자내증(自內證)을 체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청정하여 공(空)이고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이 본래의 청정심을 금강정경에서는 월륜(月輪)으로 상징하고, 삼밀관행은 중생이 본래면목인 부처로 돌아갈 수 있는 밀교의 수행법입니다.

삼밀유가관행법(삼밀유가 수행법)

중생의 본래 면목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자각하고 (自覺이 중요) 이것을 여실히 아는 것을 어실자자심(如實知自心)이라 합니다.

중생은 3업의 소유자가 아닌 부처 삼밀의 소유자입니다. 삼밀유가 관행으로 업장소멸과 삼업을 정화하여 부처삼밀로 되는 자기정화를 통해서 본래면목, 본원불로 돌아갑니다.(입아야입(入我我入))

요가(yogācara), 유가(瑜伽)

yoga는 묶다, 연결하다, 결합, 집중, 유가, 관행의 의미하며 + ācarā는 지속, 반복적인 행위의 의미하는 말입니다. 명상적, 정신 집중적인 실천을 뜻하며, 진실,

진리(本質)을 얻음이 목표입니다. 한역하여 유가수행, 유가행이라 표현합니다.

밀교의 관법수행

밀교의 관법이란 자기 주인공을 찾아가는 수행법으로, 본불생이며 연꽃처럼 청정하고 월륜처럼 밝고 빛나는 원만한 자심(自心)인 주인공을 찾는 수법입니다.

관법은 삼밀수행법 중 ‘의밀’에 해당하며 의밀은 ‘요가 삼마지’(yogāsamadhi)라고 하고 삼마지의 관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삼밀유가 관행법’이 밀교 수행법이며 밀교수행체계의 골격을 이루며, 이를 밀교삼밀관법수행(밀교삼밀관행)이라 합니다.

삼밀문으로 삼업을 정화하고 삼밀가지를 이루게 되며 비밀의 세계를 경험(중득의 면)하게 됩니다. 비밀이란 바로 ‘여심자자심’의 경계를 의미하며 반복적인 삼밀수행으로 삼밀상용, 삼밀유가, 삼밀가지를(중득의 면)이룬다.

삼밀수행은 인계(신밀) 진언(구밀) 삼마지(의밀)이며 진언염송의 구밀을 마무리 짓는 수행이 바로 의밀인 관(觀), 관법입니다.

관법의 중요성

진언에 힘이 붙어야 염송공력이 발생합니다.(불가지력) 진언염송의 힘은 관법수행으로 ‘염송삼매’에 들 때 생기게 되는데, 염송삼매에 들 수 있는 관법 수행을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정진할 때 가능해집니다.

밀교 염송선

염송선은 밀교삼밀관행의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염송의 영(念) 관법을 통해 다들 일체의 생각(망상, 번뇌)을 쉬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음이며(통일, 집중), 관법을 통해 일념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염송의 선(禪)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주(專注)하여 자세히 사유하는 것입니다. 관을 통해 마음의 집중, 고요, 평안, 안정과 통일이 실현될 상태에서 불교의 수행법인 사마타(지)와 위빠사나(관)를 닦는 염송정진법이 염송선입니다.

왜 선(禪)이라 하는가?

불교수행은 지·관 쌍수입니다.

· 지(止) - 사마타(Samatha) 마음작용의 정지, 집중
· 관(觀) - 위빠사나(Vipāśyana) 알아차림(관하는 대상에 대해)

불교의 정진은 지관 수행이며 밀교염송선은 지·관을 둘을 다 포함합니다.

일념(지止) 상태에서 염송(진언)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알아차림, 관)

관법의 종류 및 순서

〈밀교명상의 3요소〉

- 조신(調身)(좌법 좌상) - 법계정인(선정인)
 - 조식(調息)(호흡법)
 - 조심(調心)(의밀·관법)
- * 명상 3독
(수면·혼침, 잡념망상, 잘못된 좌법좌상·조신)
* 몸 속의 나쁜 기운과 나쁜 마음(생각)을 출식 때 내보낸다.

1. 호흡법

코끝에 입출하는 자신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여 자기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짧게 들이 마시고 길게 내 쉼을 반복해서 집중이 깊어지면 호흡법으로도 삼매에 들 수 있다. 매회 10~30분 정도 행합니다. *호흡법이 깊어지면 관법을 병행한다.

2. 만트라 명상

호흡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쉴 때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한 합니다. 수행정도에 따라서 관법을 동시에 행할 수 있습니다.

*월륜관, 연화관, 음자관, 본존관 등 명상이 깊어지면 삼매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매회 30분정도 행합니다.

3. 월륜관(금강계 관법, 광대무변한 광명의 상징)

월륜은 보리심(아뇩다라삼먁삼보리)과 근본지의 상징입니다.(오상성신관은 월륜관에서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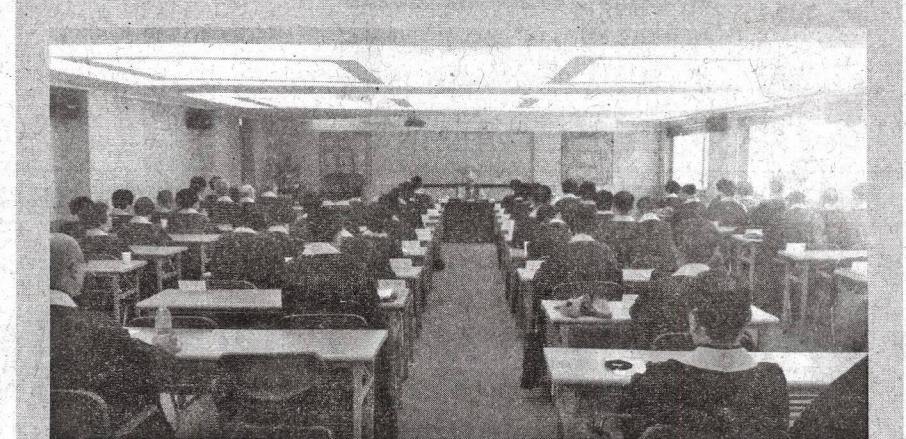
월륜관은 자심의 실체를 관합니다.(자성청정, 청량, 명조) 이것을 ‘월륜3의’이라 합니다.

*월륜의 성품(청정, 청량, 명조, 광명, 원만) - 수행자의 마음도 월륜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심이 원명한 월륜과 같다.(보리심과 같다)
자신이 바로 광대무변한 월륜(광명)임을 체득케 하는 수행법이며 중생본유불성(부처)을 자각하는 수행법입니다.

4. 연화관(태장계관법, 8엽연화, 자심청정의 상징)

‘일체중생 즉시 대일여래’와 중생본유 청정과 광명임을 표현(자각)합니다.



제132차 불교총지종

승단총회 개최

종단 현안 문제 등 스승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불교총지종은 10월 16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제132차 승단총회를 개최했다. 효강 종령 예하의 주제로 열린 승단총회는 총기 43년 종단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중앙종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하고, 괴산수련원 활용방안, 성남교도복지시설 현황, 종유재산 매입건 등을 보고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승단총회는 종지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5. 음자관(월륜 가운데 금색신으로 관함)

“삼세제불은 모두가 월륜 속에 음자관을 해 무상보리(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수호국계다라니경, 대정장권19,p570c)

음자는 법계법신의 직관적 상징이며, 佛께서 깨지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6. 본존관(옴마니반메훔)

* 월륜 가운데 금색신으로 관한다.(음자 금색신을 관할 수 있다)

* 염송선 관법 수행의 좋은 점

염송선 수행을 하면 하는 만큼 감성이 만족하고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하루를 닦으면 하루 닦은 것만큼, 이를 닦으면 이를 닦은 것만큼 이익이 있고 시작도 좋고 중간도 끝도 더 좋은 것이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동안 개략적인 사항만을 소개하였습니다. 종단 스승님들께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괴산 수련원 종원사가 완공 되었고, 이미 계획하였던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조만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이희권	9/26	10,000
관성사	강순시	10/20	10,000
관음사	황성녀	9/30	10,000
기로	인선	10/20	20,000
해정	신막심	10/15	10,000
대관	해정	9/26	10,000
밀공정	대관	10/20	10,000
법수원	밀공정	10/20	10,000
법장화	법수원	10/20	10,000
법지원	법장화	10/20	10,000
불멸심	법지원	10/20	10,000
사홍화	불멸심	10/20	10,000
상지화	사홍화	10/20	10,000
수증원	상지화	10/20	10,000
총지화	수증원	10/20	10,000
선도원	총지화	10/20	10,000
해정	선도원	10/20	10,000
단음사	해정	10/24	10,000
만보사	법연지	10/16	10,000
밀인사	정덕순	9/29	10,000
벽룡사	정정희	10/1	5,000
	무명씨	10/14	10,000
	양정현	9/3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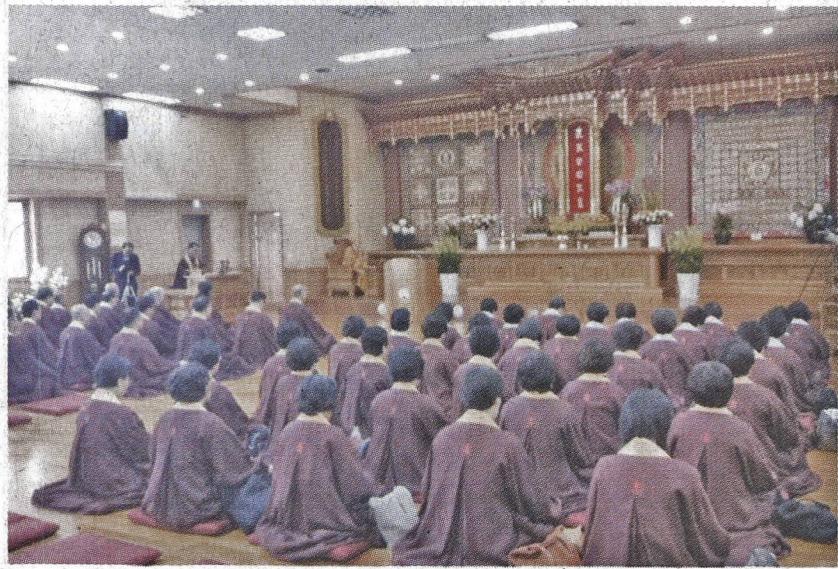
양지현	9/30	10,000	
삼밀사	하명순	10/15	10,000
선립사	심지장	10/13	10,000
	황귀석	10/24	10,000
수인사	김봉기	9/29	10,000
	무명씨	9/30	10,000
	정순득	10/13	10,000
승천사	원봉	10/13	10,000
	지선행	10/13	10,000
실보사	이순옥	10/22	10,000
실지사	정경자	9/29	10,000
	송우섭	9/30	10,000
운천사	무명씨	10/14	10,000
	하재희	9/26	30,000
	서선숙	9/26	10,000
	장재은	9/26	10,000
	김지영	9/26	10,000
	최복란	9/29	10,000
	김용미	9/29	10,000
	박문실	9/29	10,000
	구미자	9/30	10,000
	천소영	10/13	10,000

정각사	김문수	10/21	10,000
강내영	10/23	10,000	
지인사	승효제	10/13	10,000
지성	10/13	10,000	
허성동	10/23	30,000	

초록어린이집			
이은주	9/28	10,000	
오현주	9/30	10,000	
이지은	10/22	20,000	
이은주	10/25	10,	

원정대성사의 강공 정신을 오늘에 이어 받자

제84회 추계강공회 봉행
중앙종회 및 승단총회도 개최



▲ 제 84회 추계강공회가 10월 15일 서울 본원에서 열렸다.

불교총지종 제84회 추계강공회가 10월 15일 9시30분 불교총지종 종사와 법당 정사, 통리원장 법등 정사,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법우 정사, 대구·경북 교구장 안성 정사, 충청·전라 교구장 환수원 전수, 부산·경남 교구장 시정 정사 및 통리원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 전원이 참석했다.

효강 종령 예하, 기로스승, 통리원장 법등 정사,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법우 정사, 대구·경북 교구장 안성 정사, 충청·전라 교구장 환수원 전수, 부산·경남 교구장 시정 정사 및 통리원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 전원이 참석했다.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개강불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 당시 강공회를 제정하신 뜻을 반들어 오늘에 되살리자”며 “이번 강공회도 어느 때보다 일차고 좋은 강공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강공회의 의미를 강조

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개강 인사말에서 “강공회 기간 동안 열심히 정진해 강공회 의미가 되살아 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며 “평소 우리가 배우고 닦은대로 실천해서 모범적인 성직자의 모습으로 끝맺음을 하였으면 합니다.”라고 강공기 간동안 스승님들의 재충전 기간이 되기를 서원했다.

이번 강공에서는 밀교 연구소장 법경 정사의 ‘총지종 불단의 종자와 문양’을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종자’,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밀교수행과 밀교영송선’ 강의가 있었다.

강공을 앞두고 14일에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법인이사회, 중앙종회가 차례로 열렸다. 16일 오후에는 승단총회를 열어 종단 현안 문제에 대한 스승들의 가감 없는 토론이 있었다.

17일 오전 10시에는 불교총지종의 기틀을 마련한 열반 스승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스승들은 열반 스승님들의 법명을 하나 하나 염송하며 극락왕생과 총지종 교회발전을 서원했다.

이어 종강불사를 끝으로 총기 43년 제84회 추계 강공회를 모두 마쳤다.

통리원=이수협 계장



▲ 실지사 가지 불사가 10월 17일 봉행됐다.

불교총지종의 입교 개종과 함께 서울 강북 교화의 중심 사원인 실지사가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헌공 및 본존,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를 10월 17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전국의 스승 및 교도, 각 사원 신정회 간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본존 제막을 시작으로 효강 종령 예하, 통리원장 법등 정사, 실지사 주교 법우 정사의 훈향과 현화에 이어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과 교정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로 총지종 정통의궤에 따른 헌공 및 봉안불사를 봉행했다.

교정부장 원당 정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실지사는 총지종의 입교 개종과 함께 개창한 성복선교부를 전신으로 합니다. 총기 15년 12월 15일 지금의 실지사 자리인 미아동에 대지 및 건물을 매입, 본존을 이설했습니다. 초대 주교로 심인행 전수께서 역임하셨고, 선도원, 연등원 기로 스승을 거쳐 현재 법우 정사가 주교를 맡고 있습니다. 총기 42년 8월 기준 부지에 공사를 시작해 총기 43년 8월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늘 한공

불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며 실지사의 역사를 보고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헌공사에서 “불심 가득한 도시 서울에 법신 비로나나 부처님의 장엄한 법계 도량을 부처님 전에 헌공드리옵니다. 이 전당(殿堂)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원력깊은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무진서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며 수행과 교화의 도량이 되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불사에 동참해 주신 전국의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지사의 새 서원당 헌공불사는 그동안 실지사를 지켜주신 교도 여러분들의 공덕입니다. 총지종 교화의 최고 전당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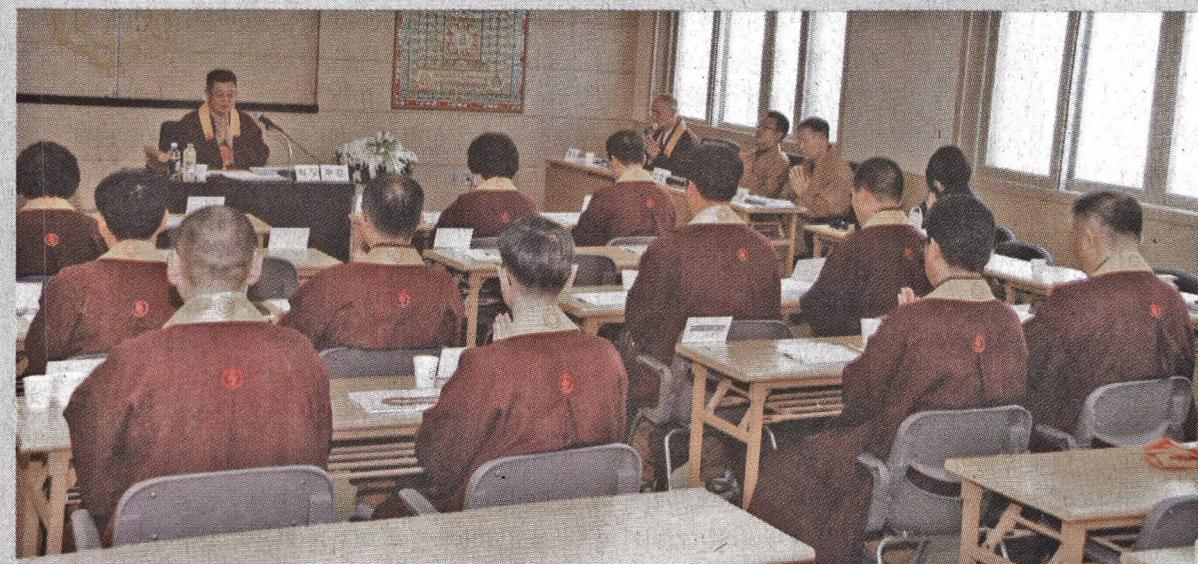
실지사 주교 법우 정사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효강 종령 예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지사의 신축을 위해 함께 정진하여 애써주신 실지사 교도 여러분들과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언 영송의 정진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는 도량이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며 헌공불사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렸다.

이어 실지사 신정회장 인명화 보살과 부림회 회장 관득각자는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서원당에서 새로운 각오로 서원 정진할 것을 동참대중 앞에서 다짐하고, 오세대제도의 교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실지사 각자들이 육법공양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원각화 보살의 해설로 진행된 육법공양은 경쇠를 잡은 김해승 각자와 선녀 연화심, 보리화 보살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육법공양률은 관득, 김용환, 보경, 김태환, 고은, 김상동 각자가 정성껏 부처님 전 공양을 올렸다. 총지종 어느 사원보다도 각자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실지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교화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통리원=양재범 통신원

총기 43년 정기 중앙종의회 개최 예산안 심의 및 임기 만료 임원 선출



▲ 중앙종의회가 10월 14일 반야실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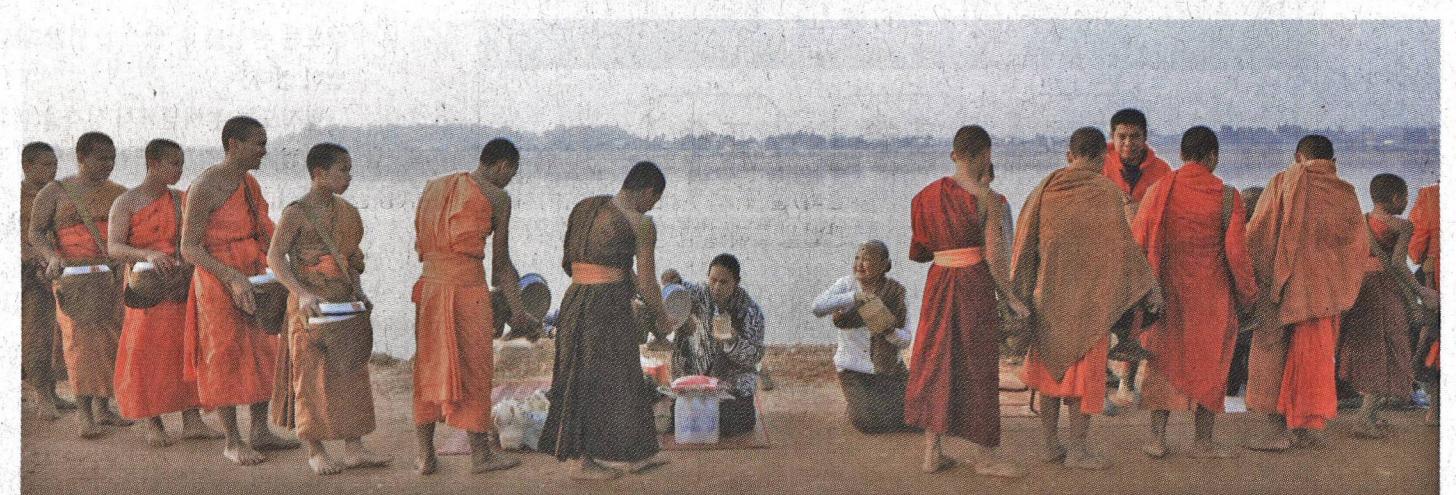
총기 43년 중앙종의회(의장 수현 정사)가 10월 14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됐다.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종회의원과 통리원장 법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와 통리원 담당 교무들이 참석했다.

종의회는 총기 43년 추경 예산안과 총기 44년 예산안 및 임기만료 각 재단 임원 및 감사, 중앙종의회의원을

추천하고 선출하였다.

신임 동해중 이사에는 선도원 전수, 수현 정사, 감사에는 승원 정사를 선출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에는 법경 정사, 지정 정사, 법일 정사, 우인 정사를 선출하고, 중앙종의회 신임 위원으로 서강 정사를 선출했다.

통리원=김평석 교무



동해중 하봉걸 수석교사, ‘시간이 머무는 땅 라오스’ 초청기획 사진전

11월 18(화)~11월 30(일)일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갤러리 예문

동해중 학교 수석교사로 교단에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면서도 치열한 창작활동으로, 부산 사진예술계의 거목이자 전국적인 지명도를 견지하고 있는 하봉걸 작가.

‘시간이 머무는 땅 라오스’를 주제로 하봉걸 초청기획사진전이 11월 18(화)일부터 11월 30(일)일까지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갤러리 예문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부산 학생 예술문화회관이 엄선한 초청작가전으로 기획된 바,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봉걸 선생은 “2008년 여름, 폭염 속에서 처음 만난 라오스의 인상은 지금도 신하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온 느낌이랄까. 낯섦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질서에 얹매이지 않는 그들의 성정을 대변하는 듯한 수도 비엔티엔의 몇 되지 않는 신호등, 그리고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미소로 맞는 라오인의 모습, 한 폭의 산수화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묘한 산들의 풍경,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 그래서 라오스를 혹자는 ‘은둔의

나라’, ‘욕망이 멈춘 나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나 나에게 라오스는 ‘시간이 멈춘 나라’, ‘포근한 엄마의 품속’ 같은 나라였다.”고 회상했다.

하봉걸 선생은 “2008년 여름의 라오스를 열병처럼 앓다가 2014년 1월과 7월, 다시 두 차례 라오스를 찾았다”며 “6년이란 세월이 흐른 라오스는 이제 더 이상 ‘은둔의 땅’, ‘욕망이 멈춘 나라’가 아니었다. 여유롭고 인간미 넘치는 나라도 아님, 변화와 개발로 꿈틀거리는 ‘도약과 비상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다.”고 아쉬워 했다.

실지사 가을삼사순례

설악산 신흥사, 비선대, 양양 휴휴암 참배



교도들은 진언 염송을 통해 실지사의 교화 발전과 각자의 이루고자 하는 서원을 불보살의 가지력으로 이루기를 기원했다.

실지사 신정회장 인명화 보살은 “헌공불사를 준비하느라 함께 고생한 실지사 교도들과 스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사순례는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는 자리로 실지사 교도들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며 순례의 소감을 밝혔다.

실흥사=통신원 홍정숙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 중원사 합동 침배

수행 정진 도량이 되기를 함께 서원



중원사 교화발전을 서원했다. 서울·경인 지회 김은숙 회장은 정원심 주교에게 중원사 발전 기금을 전하고 총지종 수행 정진 본산으로 가듬나기를 서원했다.

김은숙 회장은 “괴산 중원사가 자연속에 자리잡은 수행정진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교도들과 함께 서원 정진하겠습니다.”며 중원사 불사의 원만한 회향과 발전을 염원했다.

실지사=통신원 최영아

정각사 윤달 삼사순례, 100여명 동참

경주 국광사, 충주 미륵사지, 제천 덕주사 참배

총지종 부산·경남 교구 정각사(주교 록경 정사)는 10월 30일 윤달 삼사 순례를 다녀왔다. 10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삼사 순례단은 경주 국광사, 충주 미륵사지, 제천 덕주사를 참배했다.

첫 순례인 총지종 경주 국광사에서는 록경 정사의 집공으로 불공을 올리고 국광사의 발전과 경주 지역 총지종 교화가 융성하기를 서원했다.

이어 충주로 이동한 순례단은 마의태자의 전설이 깃든 미륵사지를 참배하고, 점심공양을 했다. 석조 미륵불 입상과 5층 석탑이 남아있다. 한반도의 정 중앙에 위치한 충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패권을 다투던 역사적인 고장이다.

제천 덕주 산성 안에 있는 덕주사는 충주 미륵사지와 함께 신라의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의 망국의 한이 서린 사찰이다. 대웅전을 뒤로 약 1.5km의 산길을 오르면

마애불이 서 있다. 이 불상은 미륵사지의 석불입상과 마주보고 있는 방향에 위치한다.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의 망국의 한이 서린 사찰이다. 대웅전을 뒤로 약 1.5km의 산길을 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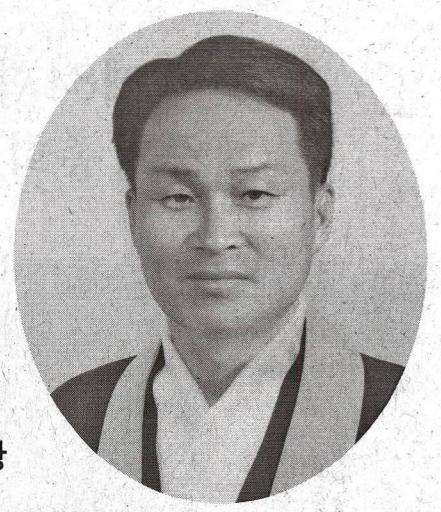
정각사=통신원 이상록

불교의 선정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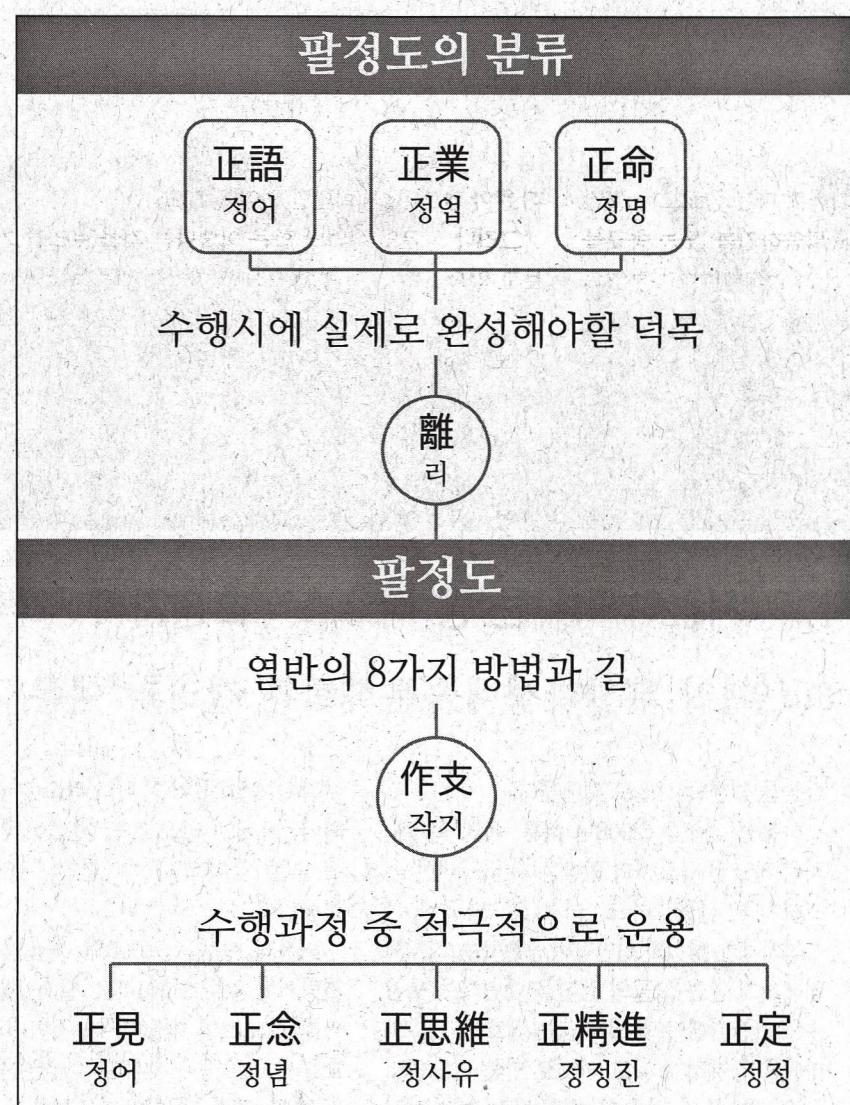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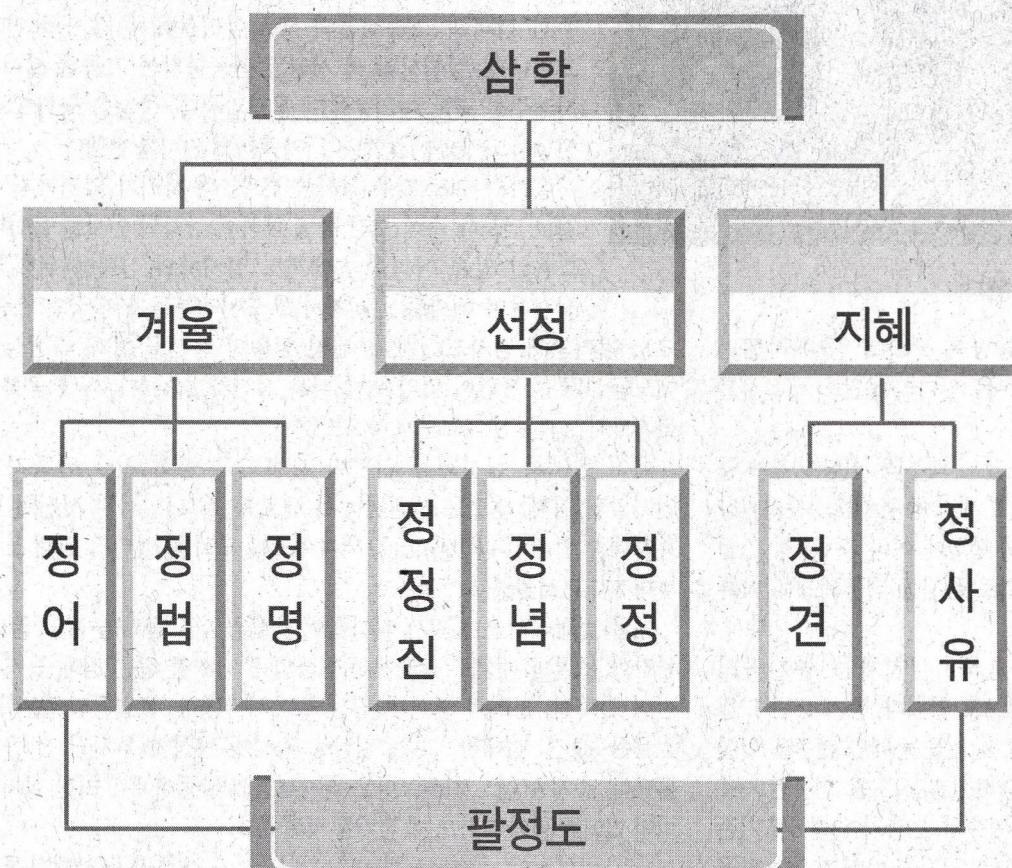
사념처 수행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8가지의 방법과 길 팔정도(八正道)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법념처의 마지막은 팔정도(八正道)에 대한 관찰과 실천이다. 팔정도는 팔지정도(八支正道), 팔지성도(八支聖道) 혹은 단순히 팔성도라고도 한다. 팔정도는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경지, 즉 열반에 이르는 8가지의 방법과 길이라는 뜻이다. 팔정도에서 '정(正)'이 의미하는 것은 사악함과 그릇됨을 모두远离하는 뜻이고 '도(道)'는 일반적정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팔정도를 닦으면 괴로움을 여의고 번뇌를 끊으며 불생불멸의 최락(最樂)의 경지에 머물게 된다. 경전에서는 팔정도를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배나 맷목(筏)에 비유한다.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중생들은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팔정도를 팔도선(八道船) 혹은 팔벌(八筏) 등으로 일컫는다.

팔정도는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8가지이다. 여기에서 정사는 정사유(正思惟)라고 하며 정정진을 정근(正勤)이라고 한다. 이러한 팔정도를 닦으면 반드시 사념처를 닦아야 하며 팔정도는 사념처의 수행에 의하여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념처는 팔정도의 중요한 자량(資糧)이며 사념처의 수행에 의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팔정도는 완성될 수 없으며 열반의 경계에 이를 방법이 없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후 사성제와 함께 가장 먼저 일러주신 가르침이다. 팔정도에서 가장 첫머리에 오는 것은 정견인데, 정견이 있어야 비로소 옳고 그름이나 선악, 진위(眞偽)에 대한 정확한 사고와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견은 우주와 인생의 진실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말한다. 『대念佛경』에서는 정견이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견(知見)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부처님께서는 "정견은 고를 아는 것이며, 고의 원인을 아는 것이며, 고의 소멸을 아는 것이며,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다."라고 설하셨다.

정사는 정지(正志), 정욕(正欲), 정각(正覺) 등으로도 역설되는데, 한 마디로 올바른 생각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정견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바른 견해라고 한다면, 정사유는 하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견에 준한 바른 사유, 바른 의사(意思)로서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일으키는 바른 의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사는 생사를 벗어나려는 생각인 출리각(出離覺), 성념이 없는 생각인 무애각(無恚覺), 그리고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인 불해각(不害覺)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바른 생각을 선취(善趣)에 테 아니게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여 삼선각(三善

覺)이라고 한다.

정어와 정업, 정명은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이미 일어난 선은 이것을 자라나게 하고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정정진이다.

정념은 진실하며 예의를 갖추고 이치에 합당한 말로써 불망어(不妄語), 불양설(不兩舌), 불기어(不绮語), 불악구(不惡口)의 4가지가 이것이다.

정업은 정당한 행위로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을 말한다.

정명은 정당한 생활수단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무기를 판다거나 살생을 업으로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파는 것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지 않고 바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어와 정업, 정명의 3 가지를 '離'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방식을 '원리(遠離; 멀리 하여 벗어남)'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정진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정정진 사정단으로 선을 기르고 악을 막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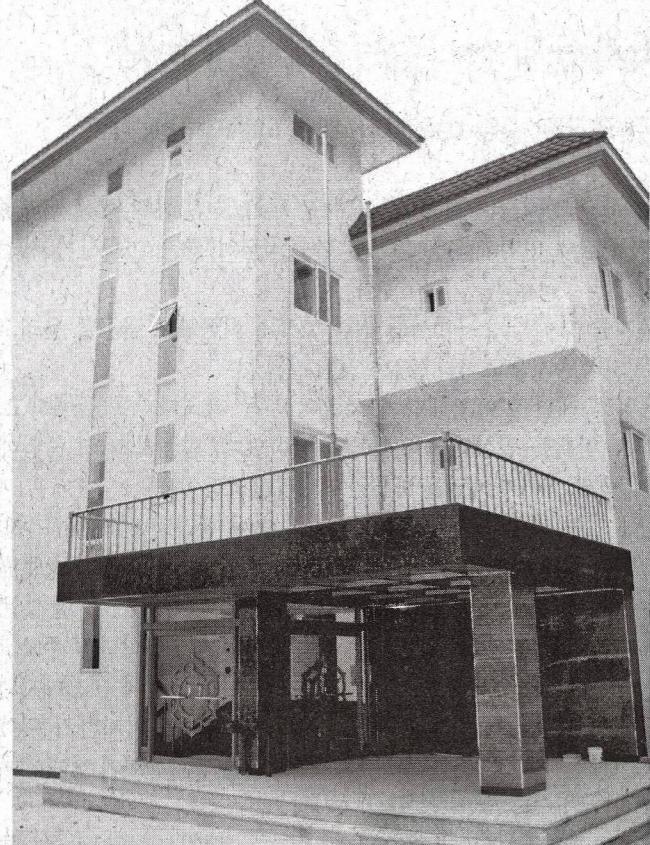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밟아 끓임없이 선을 지향하는 용기이다. 올바른 노력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등의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념과 정정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팔정도의 다른 모든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실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노력과 용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정정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사정근(四正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근이란 노력이라는 뜻이다. 사정근을 사정단(四正斷) 혹은 사의단(四意斷)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른 노력을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한 것으로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인가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상이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반대로 장애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상과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단은 선을 조장하고 악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4가지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첫째, 이미 일어난 악은 이것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정은 일상으로 소연(所緣)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정정에서의 정(定)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사마디(samādhi)의 의역이다. 이 말은 흔히 삼마지(三摩地) 혹은 삼매(三昧)로 음시되며 정(定)이나 등지(等持) 등으로 의역이 된다. 즉,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산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침울해 지거나 들뜨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정이라 할 수 있다. 정에는 구차제정(九次第定)의 여러 단계가 있으며 지(止)와 관(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 사선(四禪)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긴다.

이상의 팔정도는 불교의 삼학인 계·정·혜에 배대하여 관찰하고 실천할 수 있다. 즉 계학에 해당하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인데 이 세 가지가 잘 실천되어야 도에 이르는 기본이 갖추어진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 살아가는 방편을 보면 그 사람의 도의 경지를 알 수 있다. 정정진과 정념, 정정은 정학에 해당하며 정견과 정사유는 혜학에 들어간다. 팔정도의 이러한 삼학은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면 열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불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며 길인 것이다.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회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회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 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 하여야 합니다.)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내, 3층 총 15실

-입소인원: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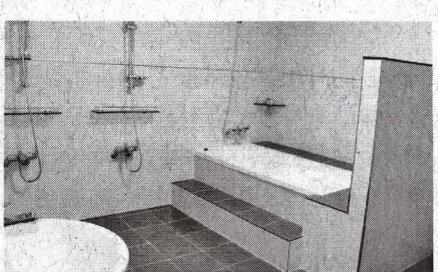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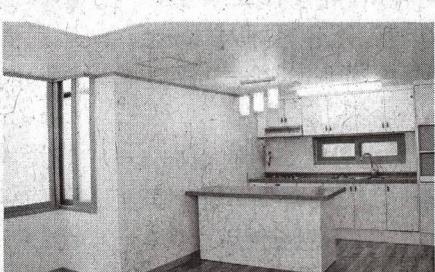
▶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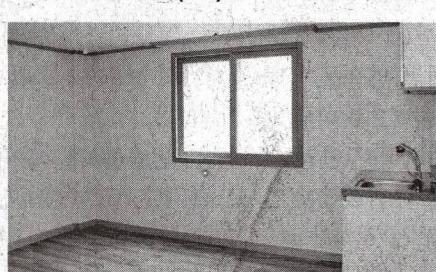
▲ 개별화장실



▲ 공동목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환당 대종사 특별법문

종교는 마음의 비밀을 벗기는 밀교라야



▲ 환당대종사(전 불교총지종 종령)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불교가 단연코 우리 민족에는 맞는 종교인가 봅니다. 무슨 까닭이나 하면 불교는 자주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타 종교는 그것을 믿는 사람 자신들의 욕구와 소망을 달성하려고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절대능력의 존재라고 믿는 신에게 덮어놓고 함부로 마구 좋은 것 달라고 졸라대고 빌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주적 종교가 아니고 그 어느 절대적 존재라고 믿는 신에게 의뢰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닦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교는 지금의 우리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가 되는 것입니다.

백번 죽어 천번 난다해도 우리 인간에겐 이 세상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곳을 며나서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을 닦고 밝혀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찾게 되면 그것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는 모든 번뇌와 고통을 벗어난 자입니다. 부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교는 당장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찾는 가르침
우리 민족에게는**

불교가 가장 적합한 종교

왜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잘 맞는 종교인가 하면 자리적으로나 혈지성으로 보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강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리적으로 삼면에 해양에 둘러싸였고 한 쪽만 대륙에서 떨어 나온 반도국입니다. 혈지성으로 볼 때는 국민성이 완전대륙성도 아니고 완전한 해양성도 아닌 중도성입니다.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불 땐 예전 고구

교를 전했다고 해서 불교로써 우리를 침략한 적이 없고 우리가 불교를 일본에 전했다고 해서 일본을 침략한 적이 없고 저들이 우리나라에 침략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평화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비밀불교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가르침**

이와 같이 불교 가운데에서도 우리 비밀불교는 더욱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불교 중에도 비밀불교는 가장 차원이 높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근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는 것이 밀교이기 때문입니다. 근기라 하는 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장 높은 차원이면서
중생 제도에 가장 적합한 밀교**

그러나 이 밀교는 차원이 높지만 바쁜 이 시대에는 우리 인간에게 닦는 방법이 대단히 간단하여 수행하기가 좋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진언만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밀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 대령왕진언 저 여섯 글자 '옴마니반메훔'만 입속에서 간단없이 외우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문적인 불교인이라서 지나치게 과장된 선전이 아니나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육자진언은 인도 말로는 '만트라'라고 하고, 중국에 와서는 이것을 뜻으로 번역하여 '진언(眞言)'이라고 하고 '성어(聖語)'라고도 하고 '적의'

마음의 비밀을 벗기고 보면 중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

려가 망한 것이나 백제가 망한 것도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 나 당연합군이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 때도 역시 자민족끼리 외세를 업고 할퀴고 물어뜯고 하는 중에 친청파·친아파·친일파 등으로 나누어져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화합단결하지 않아 결국은 나리를 일본에 빼앗기고 국민은 자유 없는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해방 후에도 남북이 역시 외세를 업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만하다가 결국 통일의 기회를 잃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자주성이나 자주력이 없는데서 온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자주적 종교인 불교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흥할 때는 나라도 흥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신라나 고려나 그 국력이 성할 때는 불교가 항상 흥왕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조를 보십시오. 건국초부터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두둔했던 것입니다. 이조 500년 동안은 이씨들 자기네끼리 골육상쟁하는 틈바구니에 무고한 백성들 까지도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종말에는 나라까지 도매금으로 팔아먹고 말게 됐습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을 확립하는 불교의 정신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불교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불교가 되는 것이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는 또 일본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인도가 중국에 불교를 전했다고 해서 불교로써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불

불교를 받아 드릴 바탕이 없든가 즉 받아들일 바탕이 열든가 하면 믿다가도 물러서고 말게 됩니다. 비유하면 음식을 먹는데 짜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맵게 먹는 사람도 있고 단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음식 먹는 식성도 사람마다 다른데 하물며 차원이 높은 종교를 받아들이는 근기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 중에도 비밀불교는 차원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높고 법이 중하고 좋은 것으로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종교를 다 두루 거친 다음에라야 밀교에 들어올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들어와서 수행 중 시련고개를 이겨내고 감당을 하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보다 더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진리란 것은 모든 이치가 한 가지이지만 들어갈 때 쉬우면 나갈 때가 어렵고 들어갈 때 어려우면 나갈 때는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만하고 그만 뒤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 나가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고 들어갈 때는 어렵지마는 고등, 대학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석사 박사학위 딴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 나가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차원이 높은 종교인 이 밀교를 믿는 데 있어서도 근기가 열은 사람은 시련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잘 참고 이겨내면, 즉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이 그 다음은 탄탄한 큰길이 열리어 이 세상 살아가기 한 걸 쉬운 것입니다.

(의의)라고도 하고 '평(明)'이라니 '주(吼)'라니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진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언을 간단(間斷)없이 외우면 그 진언의 영혜력 즉 주력으로 인하여 부사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오늘 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과학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아 낼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밀교의 진언의 힘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가위 일상 보고 있으니까요 그 현현 묘묘한 이치는 밀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비유하면 민물 한 그릇과 바닷물 한 그릇을 한곳에 두고 맛을 보지 않고는 어느 것이 짠 바닷물인지 민물인지 모를 것입니다. 미서봐야 아는 것처럼 이 비밀불교는 오래 닦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진정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밀교의 비밀은 두 가지로 대개 말할 수 있는데 부처와 부처만이 알 수 있는 비밀과 중생의 비밀입니다. 부처와 부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은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중생의 비밀은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으로서 수행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생의 비밀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본래부터 여래장을 갖추고 있으나 탐진치 삼독으로 가려져 세상을 드러난 그대로만 보는 것입니다. 진연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벗기는 것이 바로 중생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비밀을 벗기고 보면 중생의 비밀이 바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황금빛 불탑의 나라 천년고도 미얀마 성지순례

| 순례기간 |

2015년 1월 19일 ~ 23일(5일간)

- 출발 1월 19일 11:30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도착 1월 23일 09: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순례비 | 1,800,000원 (추가부담 없음)

| 모집대상 | 각 사원 스승님 및 교도, 일반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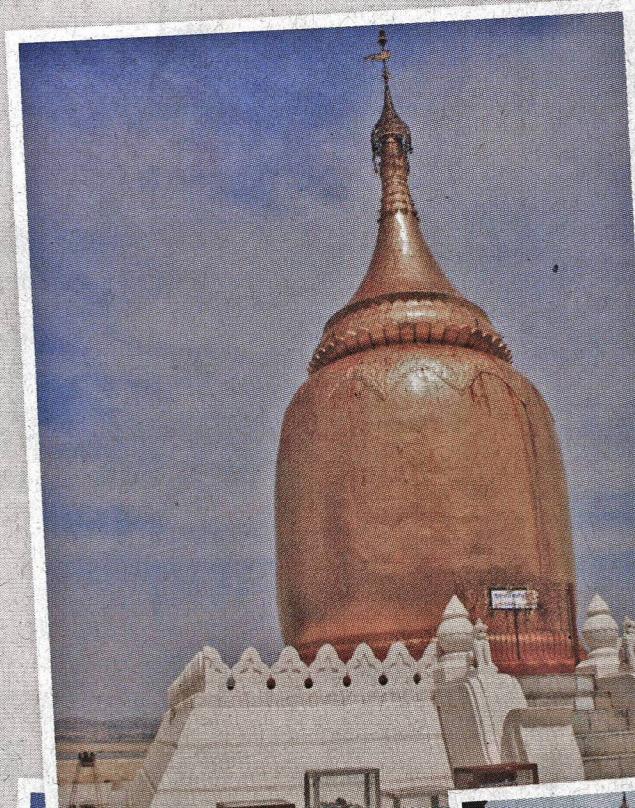
| 문의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T. 02-552-1080~3

| 순례일정 |

- 729개의 석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쿠도도 파고다 관광
- 미얀마 최대의 수도원인 마하간다음 수도원
- 티크나무다리 우째인 다리
- 마하무늬 파고다 관광
- 만달레이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진 만달레이 힐
- 탑위 비간의 전경을 감상하는 쇄산도 파고다 순례
- 이라와디 강변 선셋디너
- 낭우 재래시장에서 비간 풍물관광, 황금 대탑 쉐자곤 파고다 순례
- 바간왕조의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아난다 사원
- 내부 회암을 돌아보는 텔로먼로 사원
- 드넓은 이라와디 강변을 전망할 수 있는 부파야 파고다
- 왕국의 전설이 깃든 미누하 및 남파야 사원
- 아웅산 폭파사건의 현장인 아웅산 추모탑
- 황금 대탑 쉐자곤 파고다 순례
- 이름답고 수려한 67미터 와불인 치옥타지 파고다 순례
- 진신사리 까비에 파고다 순례
- 세계 최대의 백옥으로 조성한 로카찬다 파고다 순례

* 여권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4회 동일 음악 예술제

제4회 동일 음악 예술제

2014. 10. 25. (토) 오후 2시
부산 KBS 홀

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제4회 동일 음악 예술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 봉행

마음의 소리, 치유의 음악,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2,000여명 동참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지난 호까지 만다라상에 제1위(位)로 안립되는 부처님의 상(佛像)과 제2위에 해당하는 보살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호에서는 불보살을 제외한 제존(諸尊)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존(尊)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며 귀한 분, 성자(聖者), 수행의 완성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존(世尊)이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는다. 그런데 밀교로 오면 만다라상에서 부처님을 위시하여 보살, 명왕, 천왕 등 모든 등장인물들을 가리킨다. 통칭하여 제존(諸尊)이라고 하며, 그 상들을 존상(尊像)이라 한다. 불보살 등의 그림이나 상(像)을 존중하여 일컫는 말인데, 대표적인 존상으로 태장계만다라상에는 414존, 금강계만다라에 1461존이 등장한다.

지난 호까지 불보살(佛菩薩)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의 제존(諸尊)의 상(像)을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명왕(明王)과 천왕(天王), 사자(使者), 제천(諸天)과 천녀(天女), 천비(天妃), 용왕, 권속, 숙(宿), 궁(宮)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명왕(明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을 분노로써 인도하므로 명왕(明王)을 분노존(怒尊)이라 부른다.

명왕(明王)은 불보살을 대신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의 화현(化現)인 생인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절복하여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분노(忿怒)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자비심 많은 부처님께서 어찌 중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화를 낼 수 있겠는가. 보살안들 그렇게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이를 대신하여 중생을 타이르고 윽박지르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명왕(明王)의 역할이다. 따라서 명왕은 분노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명왕에는 부동명왕(不動明王), 향삼세명왕(降三世明王), 군다리명왕(軍荼利明王),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 금강야차명왕(金剛夜叉明王)의 오대명왕(五大明王)이 있는데 모두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명왕으로 공작명왕(孔雀明王)이 있다. 이외에도 애염명왕(愛染明王), 오추사마(烏樞沙摩), 대원수(大元帥)의 명왕도 있다.

명왕의 존상(尊像)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손에 항상 무기를 들고 있고 분노형(忿怒形)이며, 대개의 경우 다면다비(多面多臂)를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얼굴과 팔이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대위덕명왕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 개의 얼굴과 수많은 팔을 지닌 경우는 몇몇 보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죽이거나 혼내고 불법(佛法)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굉장히 바쁘고 쉴틈이 없는 존상(尊像)이므로, 얼굴과 팔 뿐만 아니라 발까지 많은 것이다. 이점이 다른 보살의 다면다비(多面多臂)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므로 많은 발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명왕(明王)의 존상(尊像)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가루라염광(迦樓羅焰光)을 들 수 있다.



▲ 금강야차명왕(日本 奈良 寶山寺)

명왕의 특징은 다면다비(多面多臂)의 형태, 지물(持物)은 대부분 무기(武器)를 지니며, 노발(怒髮)과 요포(腰布)로 묘사되어 있고, 슬슬좌(瑟瑟座)에 앉아 일체중생을 인도한다.

한다. 그래서 이를 대반석(臺盤石), 슬석(瑟石)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암좌(岩座)로서 반석좌(磐石座)라고도 한다.

대일여래의 사자(使者)로서 교령륜신(敎令輪身)에 해당



▲ 명왕의 銀像 (대위덕명왕)

가루라염광(迦樓羅焰光)은 신령스러운 새라고 여겨지는 가루라의 머리를 불꽃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부처님의 경우에 대비하면 화염광(火焰光)에 비유할 수 있다.

부처님의 화염광(火焰光)은 지혜의 불꽃, 금색신(金色身)의 화려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가루라염광은 명왕의 신령스러움을 나타낸 것이며 새처럼 멀리 멀리 날아서 무명중생들을 끌어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광배(光背) 형태의 불꽃으로 나타낸 것이다. 같은 '불꽃 화염의 염광(焰光)'일지도 그 의미와 상징에서는 사뭇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노발(怒髮)을 들 수 있다. 노어움의 화신이 명왕인데 이를 표현한 것이 노발(怒髮)이다. 화를 내는 모습을 머릿발이 솟구치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흔히 우리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다'는 말을 하듯이 말을 듣지 않는 중생을 보고 명왕이 머릿발을 세운 것을 나타낸 것이다. 분노형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물(持物)을 들 수 있다. 불보살에서도 그러하듯이 명왕 또한 여러 가지 지물을 지니고 있는데, 극(戟), 룬(輪), 검(劍), 봉(棒)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불보살의 지물(持物)과 달리 중생을 잡아서 끌어오는 데 주로 쓰인다. 불보살의 지혜와 자비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네 번째는 존형(尊形)이 청흑색(青黑色)이다. 이 색은 밀교의 사종 호마법 가운데 항복법의 색(色)이다.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을 항복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존형(尊形)의 색이 청흑색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종지종의 항복법도 청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웃자림은 불보살의 낭의(衲衣)가 아니라 맨몸에 다가 허리 정도에만 천을 걸치고 있다. 이를 요포(腰布)라 한다. 명왕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보살수행자가 아니라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존상(尊像)으로 앉아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동하기 위한 웃자림인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이 앉아 있는 자리는 연화좌대(蓮華坐臺) 이지만 명왕이 앉은 자리는 슬슬좌(瑟瑟座)이다. 이는 큰 기운으로 만들어진 자리를 말하는데, 정보리심(淨菩提心)이 견고부동(堅固不動)하여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처럼 명왕은 연꽃 위가 아니라 너럭바위 같은 곳에 앉아 있다. 왜 그런가. 명왕의 역할이 수행자가 아니라 분노존으로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부름꾼을 사자(使者)라 이름하는데 이 사자(使者)의 자리는 연꽃처럼 곱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딱딱한 자리거나 바위같은 자리이다. 여기에 잠시 앉았다가 오로지 중생제도에 불철주야 활동해야 하는 존상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명왕(明王)을 삼륜신(三輪身) 가운데 교령륜신(敎令輪身)에 배분하고 있다. 대일여래의 사자(使者)인 명왕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써 중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령륜신의 역할이다.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악인(惡人)이 아니라 내게 큰 가르침과 참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오신 교령륜신이자 명왕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부처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계시며, 명왕들도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음호에서는 천왕(天王)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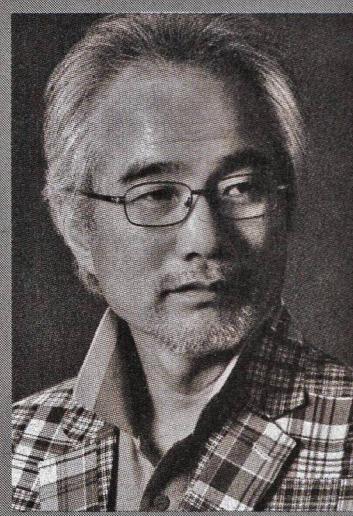
하봉걸 초청기획사진전

시간이 머무는 땅 카오스

초대 2014. 11. 18.(화) 오후 6시

기간 2014. 11. 18.(화) ~ 11. 30.(일)

장소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갤러리 예문



하봉걸 작가(동해중학교 수석교사)





한일불교문화 교류에 최선을 다하자

제10차 한일·일한 불교 여성부 교류대회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산하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북 포항 보경사, 오어사와 경주 일대에서 '제10차 한일·일한 여성부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 대회를 맞이한 양국 여성부는 2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환영 만찬을 열고, 지속적인 여성 문화교류와 불교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도산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환영사에서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가 어느덧 10년을 맞이했다. 요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면서 "처음엔 서로에 대한 협조와 유대를 바탕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법의 차별로 서로의 관심과 상대를 알아감으로 인해 대회가 거듭될수록 양국 불교 전통문화와 더불어 민족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법정 정사(총지종 통리원장)의 양국 임원소개와 최경실 교수의 힐링문화공연, 한일교류부회장 홍파스님의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영결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10월 4일 이사회에서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새 회장에 일본 진언종 대본사 가와사카다이시(川崎大師) 헤이겐지(平間寺) 관수(貫首)인 후지타 휴조스님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일 여성부 백명숙 회장은 "이번 10회 대회는 한국의 전통사에서 연등 만들기와 전통 매듭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에 담긴 깊은 뜻을 체험하기 바란다."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랬다.

이번 양국 여성교류대회에는 이사장 도산스님과 부회장 홍파스님, 부이사장 남정스님, 사무총장 법정정사, 사무처장 향운스님, 총화종 포교원장 혜광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등 한국 측 50여명과 일본 측은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다카나 후우세키 여성부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협조=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종진 차장

25일에는 불국사를 참배한 뒤 오후 부산 KBS홀에서 총지종이 주최하는 '제4회 통일 음악예술제'와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10회 부산불꽃축제를 관람하는 것을 끝으로 대회를 회향했다.

이번 양국 여성교류대회에는 이사장 도산스님과 부회장 홍파스님, 부이사장 남정스님, 사무총장 법정정사, 사무처장 향운스님, 총화종 포교원장 혜광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등 한국 측 50여명과 일본 측은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다카나 후우세키 여성부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법정 정사(총지종 통리원장)의 양국 임원소개와 최경실 교수의 힐링문화공연, 한일교류부회장 홍파스님의

설정이 외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희망등록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 좋은 기회를 통해 동참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5,000번째 희망등록자가 되어 기쁘고 보람 있다"고 전했다.

행운의 5,000번째 희망등록자는 이달 초 광주전남본부의 전남대학교 캠페인에서 참여한 유진아 양이다. 유진아 양은 백의 천사를 꿈꾸는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생으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조계종, 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40억, 특별회계 239억

교육불사·신도교무금·승려복지 예산 증액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불기 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29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했다.

조계종 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4,041,479,900원(증액률 2.1%)으로 2014년(23,535,806,000원) 대비 505,673,900원 증액했다.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3,971,408,690원으로 2014년(21,155,088,000원) 대비 2,806,320,690원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교육 불사 예산은 2014년(4,040,000,000원) 대비 4,515,000,000원으로 475,000,000원 증액/ 신도교무금 예산은 2014년(510,000,000원) 대비 950,400,000원으로 440,400,000원 증액/ 승려복지 예산은 2014년(2,580,000,000원) 대비 2,708,000,000원으로 128,000,000원 증액했다. 그에 의해 본지점 예산은 2014년(6,399,988,000원) 대비 6,306,598,690원으로 93,398,310원 증액/ 연수교육 예산은 2014년(543,600,000원) 대비 519,210,000원으로 34,390,000원

감액됐다. 한편, 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계정과목별 세입 직할분담금 내용을 보면 2014년 예산 대비 동결, 약사사 및 선암사 직할 전환으로 추가 배정됐다. 법인분담금은 선학원 동결, 대각회는 2천만원 감액 됐다.

직영분담금 내용을 보면 종단(조계종) 세입예산을 감안해 43,297,900원 증액(직영분담금 실제 증가액 267,627,900원에서 약사사 및 선암사 직할 전환에 따른 분담금액 224,330,000원 차감반영)했다고 브리핑했다.

진각종 내년 예산 166억400만원 확정

종의회·유지재단합동회의, 원명 정사 종의회 의원 선출



진각종 내년 통리원 예산은 포교사업과 문화사업 등이 소폭 증가했으며 각종 행정비, 부서 운영비 등은 감소했다. 교육원 예산은 동결됐다.

종의회는 이어 법경 정사의 교육원 교무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종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종의회 의원으로 원명(대명심인당 주교·교법 분과) 정사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종의회는 12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유지재단 이사 법정(경전심인당 주교), 경당(행원심인당 주교), 회성(시경 심인당 주교) 정사를 유임시키로 결의하는 한편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유가심인당 주교 덕운(김성록·2015.1.4) 정사를 복수추천 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2014, 올해의 재가불자상'

후보자 추천 접수, 11월 1일~28일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는 올해(11회)에도 재가불자 후보자 추천서 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담당:홍보팀장 이병인, 02-2278-3417)에서 받는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의 재가불자'에 선정된 불자 수상자의 실천적인 노력을 널리 홍보해 재가불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출서류는 후보자(개인) 이력서,

후보자 추천서(개인 혹은 단체)를 첨부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2일/수여식은 12월 13일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명나눔, 5000번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전남대 유진아양

11월 11일 A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20주년 기념행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의 20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5,000명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행운의 5,000번째 희망등록자는 이달 초 광주전남본부의 전남대학교 캠페인에서 참여한 유진아 양이다. 유진아 양은 백의 천사를 꿈꾸는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생으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설정이 외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희망등록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 좋은 기회를 통해 동참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5,000번째 희망등록자가 되어 기쁘고 보람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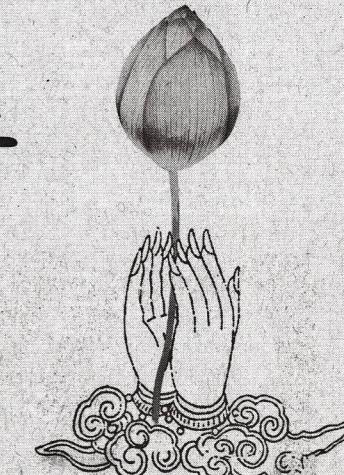
행운의 5,000번째 희망등록자는 이달 초 광주전남본부의 전남대학교 캠페인에서 참여한 유진아 양이다. 유진아 양은 백의 천사를 꿈꾸는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생으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 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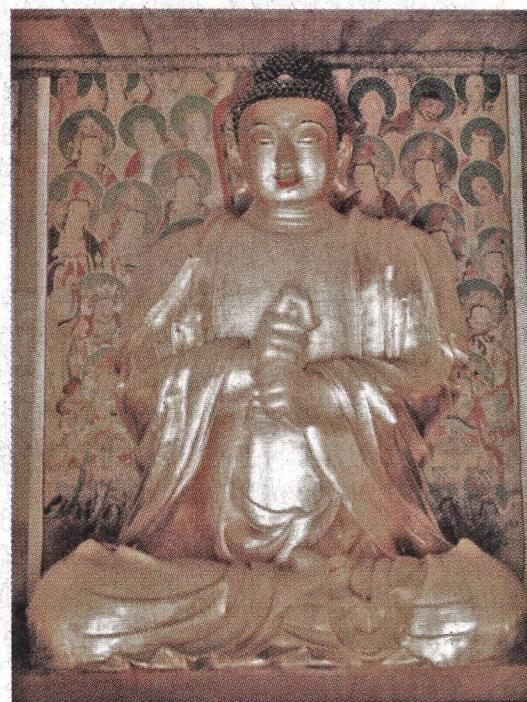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 958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慶州 新林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소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20번지 기림사
시대: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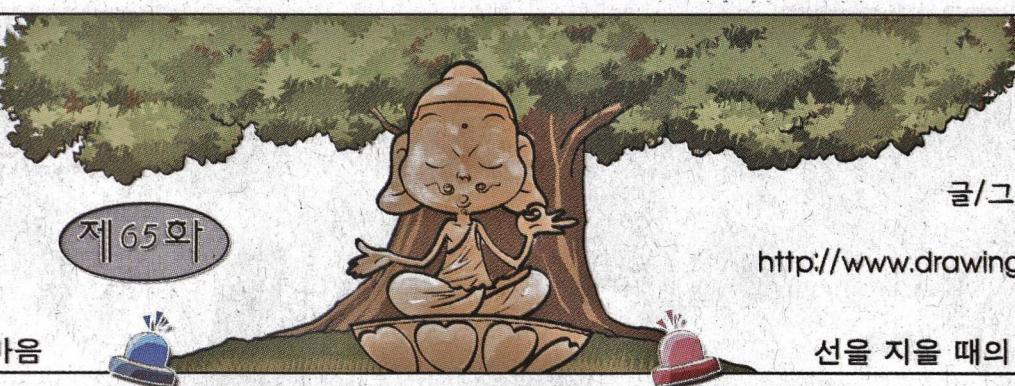


▲ 제 958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승려 광유가 창건하여 임정사(林井寺)라 부르던 것을 원효대사가 기림사로 고쳐 부르기 시작하였다. 기림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불상인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향나무로 틀을 만든 뒤 그 위에 진흙을 빌라 만든 것이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좌우에 약사(藥師)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협시로 배치한 형태이다. 근엄하면서도 정제된 얼굴, 양감이 풍부하지 않은 신체의 표현, 대부분의 미로 묶은 옷 등에서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불교총전**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죄를 지을 때의 마음

선을 지을 때의 마음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3편 업감연기 243p

관세음보살**42수(手) 진언****5. 발절라수(跋折羅手) 진언**

옴 이베이베 이야 마하시리예 사바하

만약 일체의 천마신을 항복받으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토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토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20,000원 소(小)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생활불교의 실천은 오계의 준수로부터

불교진흥원 주최 다보법회 화령 정사 설법

불교총지종은 창종 43년이 된 종단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창종 당시부터 생활불교를 표방하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모셨기 때문에 편의보발과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포교의 핸디캡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600년의 한국불교의 역사를 통하여 각인되어 온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에 익숙한 일반인들이 생활불교의 진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출가불교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생활불교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생활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는 불교가 아니라 그러한 구분을 초월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나의 행복은 물론 조화롭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는 극락정토 건설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불교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다. 그것도 나만의 해탈이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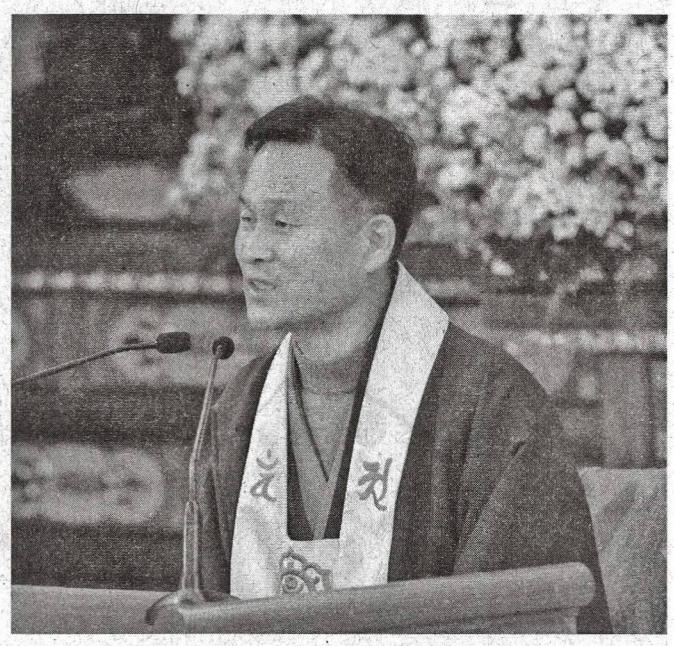
중생들이 함께 열반에 저 언덕에 이르기를 서원한다. 생활불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진정한 대승불교이며 불교총지종은 진언이라는 병편으로써 이를 실현한다.

불자들이 다양한 수행방법으로 신행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은 자아를 살피고 지혜를 개발하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출가니 재가니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불법이 실천되고 그것으로써 우리의 행복이 달성되려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불법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오계의 준수이다. 깨달음을 관념화하여 일반 대중이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하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없는 불교는 이미 죽은 불교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불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계의 준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계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기 때문에 더불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오계의 준수는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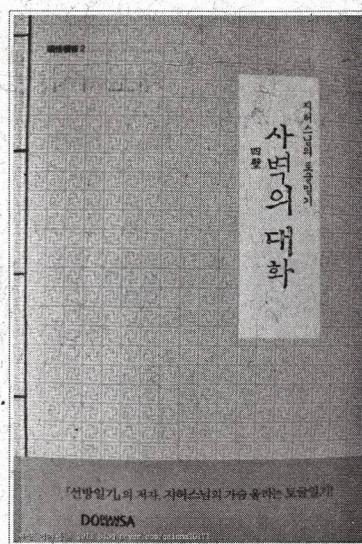
그리고 오계는 단순히 금지하는 조항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살생의 계도 직접적으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음과 굶주림, 폭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도 불살생에 포함되어야 한다. 불투도의 계도 단순히 남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폭리, 공공 재산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손실 등도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오계를 시대에 맞게 확대해석하여 준수할 때에 더 이상의 윤리규범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리 높은 도를 추구하더라도 오계의 준수에 철저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생활불교는 가장 기초적인 오계의 준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하루 중의 행주좌와 모든 것이 수행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삼보의 은혜를 생각하고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며 불교를 생활화하고 생활 자체를 불교화 해야 한다.



문학적 향기 가득한 토굴생활의 기록 <사벽의 대화>

불교서적
에세이



『선방일기』의 저자,
지혜스님의 가슴 울리는 토굴일기

수좌들의 수행공간으로는, 대중처소인 선방과 개인적 수행처인 토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공간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기에 일반 대중에겐 호기심의 장소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행할까, 하고 늘 궁금했었는데 지혜스님이라고 1960년대를 살았던 한 스님이 이러한 궁금증에 답해주었습니다. 〈선방일기〉를 통해 선방에서의 대중생활을 보여주었던 지혜스님은 이번에는 〈사벽의 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토굴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사벽의 대화〉는 〈선방일기〉의 인기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방일기〉 출간 이후 사람들은 지혜스님에 대해 궁금해 했고, 그의 다른 저서를 찾아 두리번거렸으며,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사벽의 대화〉인데, 1968년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에 연재됐다가 김광식 교수의 제안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됐습니다.

〈사벽의 대화〉는 〈선방일기〉 이전에 쓴 책으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위치한 정암사에서 20여 리 떨어진 '심적'이라는 토굴에서 1962년 봄부터 1963년 봄까지 1년간의 토굴생활 기록입니다. 지혜스님은 이 토굴에서 '유야무야(有耶無耶)'라는 화두를 잡은 채, 범어사 출신의

석우스님과 함께 수행했는데 그 경험을 쓴 책입니다.

선방생활은 스님들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수행을 일구어 가는 공간인데 반해 토굴생활은 혼자 아니면 마음 맞는 도반과 생활하기에 차치 나태와 권태에 빠지기 쉬운데 두 스님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엄격하게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도토리를 주워와 삽아먹고, 나물이 나는 철이면 산나물을 뜯어 반찬을 하면서 소박한 식사를 했고, 멜나무는 하루에 두 번 한 짐씩 했고, 식사 후엔 도토리를 깊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잠들었습니다.

조반이 끝나자 꿀밥 속에 불을 지펴 놓고 나무하러 갔다. 생목벌채는 금하고 고사목만 채취하는 게 불문율로 돼 있어서 한낮이 돼서야 겨우 한 짐 할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꿀밥 속에 물을 갈고 불을 지펴 두고 또 나무하러 갔다. 나뭇길에서 돌아오니 석양이 우리들의 토굴을 황금색으로 물들여 주고 있다.(83p)

우리는 점심을 놓고 마주 앉았다. 짧은 꿀밥(도토리의 경상도 사투리)가루가 주식이고 날무에 소금이 부식이었다.

나는 시장했던 터라 맛도 모른 채 한 발우 가득 먹었다. 잠시 후 오공(午供)은 끝났다. 밭우는 깨끗이 치워졌다. 꿀밤도, 무도, 소금도, 밭우에 담겼던 모든 식물은 모두 흔적도 없어졌다. 일단 밭우에 담긴 음식물은 철저히 없애는 게 승가의 식사규풍(食事規風)이다.' (32p)

원시인의 혈거와 같은 움막에서 생활하고, 우연히 시장에서 맡았던 된장냄새가 사치일 정도로 가난한 생활이지만 두 수행자는 육체적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면서 정신을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일부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백장 회해선사의 말씀처럼 노동과 수행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문학적 향취였습니다. 구도자의 신분을 떠나서 인적 없는 산속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며 이 경험을 문학소년 같은 감수성을 갖고 표현했는데 엄격하고 단조로운 수행생활에 윤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판사/ 2010/ 11,900원)

삼보전에 귀의합니다_0_

(주) 주원항공여행사는 13년 전통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해외 여행 전문업체로서 불교성지순례 전문, 공무원해외연수, 공기업 및 일반기업 시찰, 패키지여행, 기획여행, 항공권 발권 및 전세계 비자수속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성지순례 및 기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주원항공여행사"를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모설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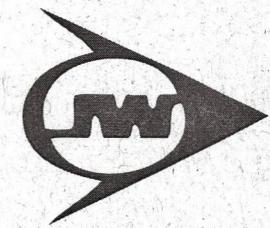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 주요업무 안내 - [예약문의 : TEL (02)733-2999]

- ▶ 전세계 불교성지순례행사
- ▶ 기업체 및 일반 해외여행
-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
- ▶ 공무원해외연수 및 공공기관 해외연수
- ▶ 친목단체 맞춤형 기획 해외여행
- ▶ 전세계 비자수속 대행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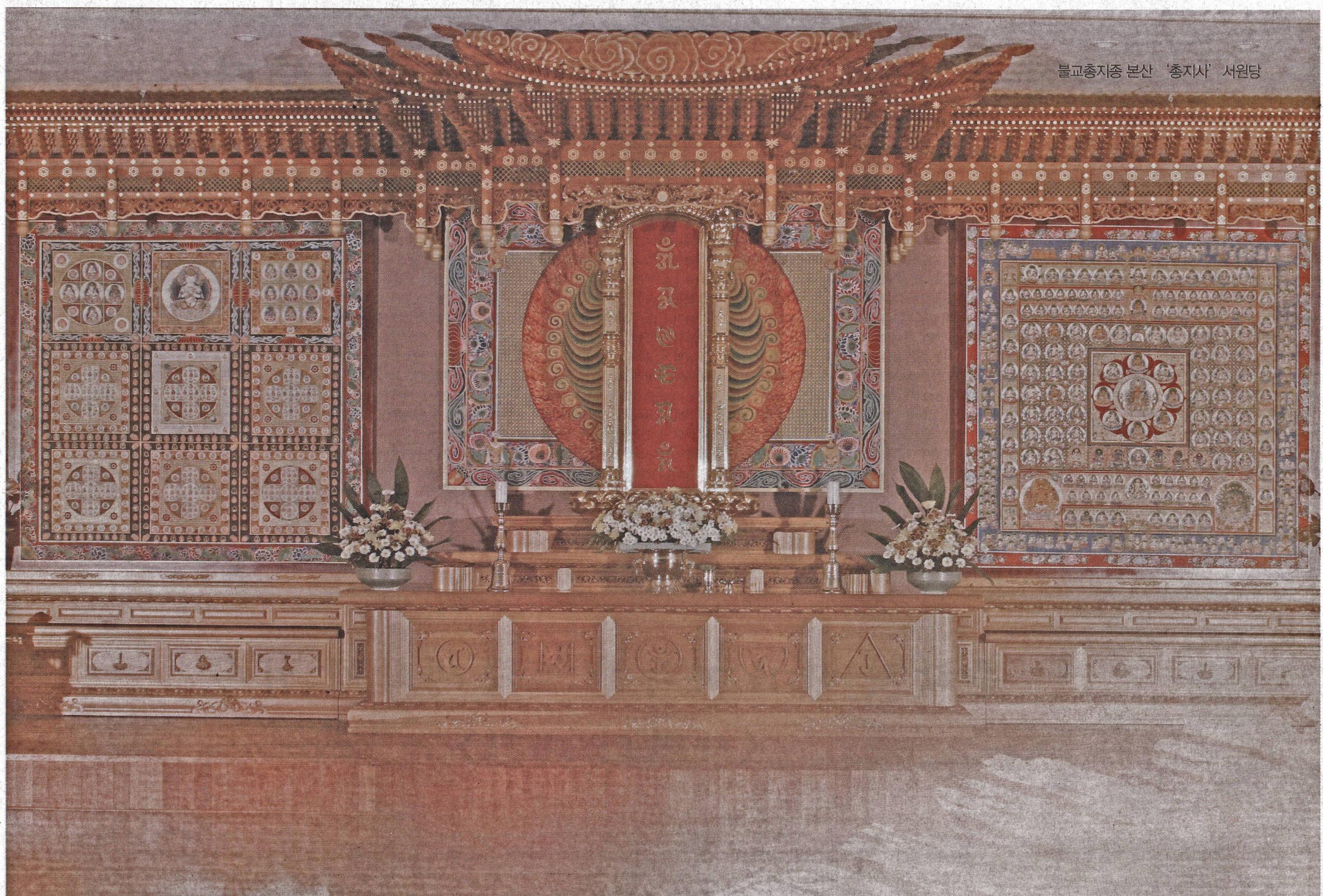
● 담당자 안내

- ▶ 대표이사 김 인수 (H. 010-3218-5474)
- ▶ 불교담당 총괄이사(H. 010-8443-9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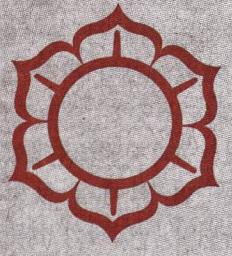


(주) 주원항공여행사
JUWON TRAVEL AGENCY

TEL:(02)733-2999 / FAX:(02)733-2998 / 홈페이지 : <http://juwontour.co.kr> / E-mail : juwon2999@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4-1 삼송빌딩 8층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월초불공

12월 1일 ~ 12월 7일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